

수업의 사계

이규철

성문고등학교 교사,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 소장

1. 수업의 겨울: 빨강

계절에 사계가 있듯이 수업에도 사계가 있다. 화사한 봄,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그리고 앙상한 겨울……. 나는 25년 차 국어 교사다. 이쯤 되면 수업의 전문성을 갖춘 노련한 교사의 반열에 선다. 하지만, 교육 경력이 쌓인다고 수업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 경력과 수업 전문성 사이에는 함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경력이 많아질수록 반비례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나의 이야기는 후자이다.

2014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파견 생활을 하다가, 2015년 2월 초에 학교로 복직하였다. 준비가 안 된 복직이라서, 다소 당황스러웠다. 당장 내가 맡을 과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 대신에 교육학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과목이어서 마음이 어려웠다.

첫 수업 시간,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데, 학생들은 누구도 나와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비주류 중 비주류, 대학 입시에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과목의 교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유령 교사’가 되었다. 나의 존재는 있는데, 학생들은 전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부정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수업의 겨울이 시작되었다. 창밖은 벚꽃이 휘날리는 봄이지만, 내가 하는 수업은 황량하고 양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겨울이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관례대로 자습을 당당히 요구하였다. 익숙한 문화를 유지하려는 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나는 익숙함과 결별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다. 수업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한 줄기 오아시스가 보였다. ‘감사 일기’를 다섯 개씩 작성하는 작문 연습이었다. 그리고 덤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선곡해서 들려주는 전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섰다. 인디 음악과 감사 일기 작문은 학생들이 괜찮은 반응을 보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써서 붙임쪽지에 내면, 수업 시간에 들려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변화는 조금씩 생겼다. 수업 시간 10분 정도는 자리에 앉아 ‘감사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나에게,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로 점차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수업을 구상했다. 지금까지 수업은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고, 진도를 동료와 맞춰 가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교육학 수업은 예전과는 달라야 했다. 우선 교과서가 없으니, 바탕글을 찾거나 수업 자료를 구성해야 했다. 쉬우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흥미로우며, 다른 과목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쪽지로 받았다. 학생들이 쓴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구상을 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를 유발하고, 공부하고 싶은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랬다. 이론에서 배웠던 수업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절박함’에서 생긴 것이다. 수업에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함이 무의식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선택이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 고민의 골짜기를 거닐었던 결과였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다. 자습을 하던 학생들은 친구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쓰고, 발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생각의 변화는 학습이다. 학생들의 생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학습이 일어나는 반증이기도 했다. 학기말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교육 시간에는 매번 10분 동안 음악을 감상하면서 감사 일기와 성찰한 내용을 쓰는데 이것을 쓰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감사한 것을 찾다 보니 보람찬 하루를 보낸 느낌이 들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날의 성찰에 무엇을 쓸지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나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주제로 장점 찾아 주기 활동을 했었다. 이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도 쓰고 친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의 장점을 써 달라고 하고 내가 친구들의 장점도 각각 써 주는 활동이다.

“이 수업 시간은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나는 자신감도 별로 없고 나에게 장점보단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친구들에게 내 장점을 적어 달라고 해서 적어 준 것을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나를 더 팬찮은 아이로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015년 이○○ 학생 교육학 섭김이)

2. 수업의 여름: 파랑

수업의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아니라 여름이 왔다. 지독한 겨울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솟구쳤다. 고통의 바다에서 익힌 훈련을 실전에 적용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자발적 외침으로 자연 계열 문학을 맡았다. 사실 자연 계열

학생들에겐 수학과 과학 과목이 필수이고 문학은 선택이었지만, 이미 내성 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령 취급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이 생겼다.

2월부터 문학 교과서를 분석해서 12개의 주제로 나누는 작업을 했다.

1. 만남, 그 설렘 안으로: 참 좋은 말 - 동백꽃 - 문학과 건축
2. 성장, 더 나은 나를 찾아서: 영화 완득이 - 아직은 연두 - 소년 시절의 맛 - 열여섯 살의 겨울 - 상한 영혼을 위하여
3. 이별, 성숙으로 초대: 동짓달(황진이 - 연인과 이별) - 서경별곡(연인과 이별) - 제망매가(가족과 이별) - 속미인곡(왕과 이별)
4. 사랑, 이 세상 마지막 단어
5. 정의, 껌데기를 벗고 알맹이를 품다: 그렇습니까? - 임꺽정 - 두텁비 - 호질 - 눈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6. 꿈, 익숙한 나를 떠나 낯선 나를 초대한다
7. 권력,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인가?
8.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존재
9. 사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 줘야 하는 대상
10. 성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아 성찰 일지 → 원쪽 질문, 오른쪽 대답. 분량 1쪽 넘지 않기, 10문 10답
11. 가족, 힘든 나를 응원하는 힘: 수라 - 접동새 - 정읍사
12. 친구,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주제 중심의 블록 수업을 계획했다. 고등학교 수업은 50분이 1차시다. 그러다 보니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웠다. 대개 50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쓰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의 50분 수업을 연결하여 100분으로 만들었다. 아주 긴 호흡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생각 열기 - 생각 쌓기 - 생각에 날개 달기 - 삶과 접속하기’로 수업 진행이 가능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했는데, 바로 활동지였다. 활동지는 주제별 수업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만남’을 주제로 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문학 활동지

1. 만남, 그 설렘과 두려움의 길에 서 있다

마음 열기

1) 나를 소개하고 너에게로 간다

- 꼬마 출석부로 자기 소개하기
- 스탠딩 인터뷰로 친구 찾이하기

2) 우리는 60억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구에는 250개 나라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592,175명의 고등학생이 있고, 2,344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문고등학교 2학년에서 만났다. 우리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부른다.

이선희 ‘인연’(윤민수, 신용재 버전 노래)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 다시 보게 되는 그날 /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 남은 길을 가리란 걸 /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중략)…

3) 정현종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 /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질문 1. 이 시에서 가장 와닿는 시구는?

질문 2. 그 이유는?

4) 여러분은 2학년 생활에서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가? 해당하는 것에 ✓
표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손수건	생선	지우개	건전지	꽃봉오리

□ 생각 쌓기

- 1)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과 훈훈한 만남을 위해서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감 능력이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잘못된 만남'을 할 수 있다.

천양희 '참 좋은 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 한 잎의 혀로 / 참, 좋은 말을 쓴다.
 미소를 한 600 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 네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 /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말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 / 한 줄기의 슬픔으로 / 참, 좋은 말의 힘이 된다
 바닥이 없다면 하늘도 없다는 말 / 물방울 작으나 큰 그릇 채운다는 말 / 짧은 노래는 후련이 없다는 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 한 송이의 말로 / 참, 좋은 말을 꽂피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란 말 /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질문 1. 교과서(17쪽)를 낭송해 봅시다.

질문 2. 시를 써 본 느낌이 어떠세요?

질문 3.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해 보세요.

질문 4. 이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시구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질문 5. 자신이 생각하는 '참 좋은 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빙칸을 채워 보자.

참 좋은 말은 ()이다.
왜냐하면 ()은/는
()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업의 여름이었다. 수업의 열기는 뜨거웠다. 나 역시 교사 초임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수업 계획, 수업 실행은 있었지만, 수업 성찰은 미비했던 시기였다. 새로운 시도로 바빴던 시기였다. 나의 내면에서 겨울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고,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 뜨거움은 잘 사용하며, 에너지를 내고 가열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잘못하면 델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친 열정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 시절은 그랬다. 나의 열정은 아이들을 힘들게 했고, 나 역시 열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먹지 말아야 하는 물을 먹기도 했다. 물론 그 물은 시원했지만, 배가 부른 것이었다.

3. 수업의 가을: 노랑

수업의 가을이 찾아왔다.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성찰하는 계절이었다. 여유가 있었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 갈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수업 계획서를 나눠 줬다.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의 맥락을 알고 있으면 협력적인 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10분 독서’를 시작하였다. 1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이다. 분량에 상관없이 자신의 책 읽는 속도를 존중했다. 어떤 학생은 2줄을 읽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3쪽을 읽어 나가기도 했다. 속도가 다른 읽기 수업은 학생들의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하고, 열매도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 열린다. 그리고 학생들과 발표 수업을 하였다. 자발적인 학생 발표였다.

들이어서 한마음으로 시작한 발표 수업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내기도 하였다. 수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다. 다음은 10분 책 읽기와 책 읽고 서평 쓰기에 대한 안내이다.

1. 수업 시간 10분 독서

- 1) 2학기에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 동안 책 읽기를 합니다.
- 2) 고전 문학 작품 읽기: 카프카 ‘변신’
- 3) 8월 11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시작합니다.
- 4) 매 시간 담당 선생님께 읽은 부분과 질문 만들기를 검사받습니다.
- 5) 책 유인물을 나눠 줍니다.
- 6) 과정형 수행 평가: 책 읽고 질문 만들기(10점)
- 7) 방법: ① 쉬는 시간부터 책을 읽을 수 있음.
 - ② 책을 읽으면서 최대한 자신이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책에 표시함.
 - ③ 질문은 2~3개 이상을 함.
 - ④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내용 전개상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침.
 - ⑤ 자신이 읽은 후 날짜를 기록함.
 - ⑥ 담당 교과 선생님께 확인받음.(도장 또는 사인)
 - ⑦ 8월부터 11월 3일까지 읽음.
 - ⑧ 읽는 속도에 따라서 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최대 연장은 11월 3일까지임.
- 8) 평가: ① 수업 중 평가
 - ② 질문의 수준(사실적 질문보다, 추리 상상적 질문, 비판적 질문이 좋음)
 - ③ 내용의 이해(방법 ①번이 책에 표시된 정도)
 - ④ 평가 점수는 10점
- 9) 과정형 수행 평가: 책 읽고 서평 쓰기(10점)
- 10) 방법: ① 책을 다 읽은 후 카프카의 ‘변신’ 서평 쓰기
 - ② 인터넷에서 베낀 작품은 0점 처리함.
 - ③ 서평 쓰기는 추후에 안내함.

2학기 수업은 주제 선정과 단원을 배치하면서 세밀함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수업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수업의 실행, 수업 성찰까지에 이르기까지 수업 친구와 깊은 고민을 했다. 내가 수업의 가을에서 열매를 맺는 건 모두 수업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다. 땅감이 홍시가 되려면, 까치의 공격, 서리, 땅별의 날씨 등의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수업의 가을은 그렇게 왔다. 다음 수업 흐름은 수업 친구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다.

가. 공동체: 혼자보다 더 나은 우리

- 1) 선제리 아낙네
- 2) 빨래
- 3) 토지

나. 정의: 껌데기를 벗고 알맹이를 품다

- 1) 롤스 ‘정의론’
- 2) ‘난쟁이가 쏘이어 올린 작은 공’ – 분배의 정의
 - 1. 우리 시대의 난쟁이(최소 수혜자) 찾기:
모둠별 임무 - (who)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난쟁이를 찾아라!
예)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일용직, 다문화 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르바이트생
 - 2. (why)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난쟁이인가?
 - 3. (what) 활동지 - 모둠
 - 4. (how) 대안 제시: 모둠별 분배의 정의 1개 정해서 만들기
 - 공정한 합의에 의한 계약 만들기
 - 모둠별 선택(직업별 인물 중복 가능)
- 3) 아이폰의 뒷면 – 세계화에 따른 분배의 정의 그림자
- 4) 사설 시조 – 권력의 정의(‘두터비’)
- 5) ‘호질’ – 표리부동
- 6) ‘눈’ – 내 안의 정의를 찾아서
 ⇒ 주제: 내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제안서 작성, 학교, 사회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기

다. 성찰: 나를 돌아보고, 너를 이해한다

- 1) 나는 누구인가
- 2) ‘삼국유사’: 편견과 판단
- 3) ‘차마설’: 소유의 성찰, 겸허함
- 4) 《제2의 성》: 여성성/남성성
- 5) ‘상한 영혼을 위하여’: 타인의 아픔 공감, 수용

라. 사랑과 이별: 성숙한 사랑을 위한 아픔

- 1) ‘서경별곡’
- 2) ‘속미인곡’
- 3) 황진이 시조
- 4) ‘춘향가’
- 5) ‘알 수 없어요’

마. 성장(지적인, 정서적, 의지적)

- 1) 《논어》, 《맹자》, 《순자》: 군자의 길
- 2) 《시기열전》: 신념
- 3) 《국가》: 편견

4. 수업의 봄: 연두

다시 찾아온 봄은 마침내 겨울의 날씨를 뚫고 올라온 새싹처럼 부드럽고, 싱그러웠다.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완성 상태인 연두처럼 나는 수업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반복은 차이를 수반한다. 다시 나에게 수업의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거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내가 경험과 실천으로 얻은 내면의 단단함이 남아 있기에, 어렵지만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봄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교사는 고통을 이겨낸 성숙함을 갖고 교사로 다시 태어난다.